

“엄마의 다각적인 모습 보여줘 의미 있었죠”

‘동백꽃 필 무렵’ 엄마 ‘정숙’ 역 맡은 배우 이정은



“전성기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헐적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부터 올해 평일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까지, 카멜레온 같은 매력과 연기력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배우 이정은(49)은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정은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공효진 분)의 엄마 정숙 역을 맡아 눈물 나는 모성 연기를 선보였다.
이정은은 드라마 종영 후 4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차대 소재 때문에 tvN ‘아는 와이프’ 때와 이미지가 겹칠까 주저했는데, 제

늘) 엄마 역 고두심, 동백 아들 역 김강훈과의 ‘케미’ (케미스트리:조화)를 자랑하며 “고두심 선생님은 현장에서 연기만으로도 배울 거리를 주신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선배님이다. 필구는 무엇을 해도 예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1991년 연극 ‘한여름밤의 꿈’으로 데뷔해 오랜 세월 무대 연기로 내공을 다졌다.
주로 정 넘치고 푸근한 중년 캐릭터 역할을 맡아온 그는 tvN ‘미스터 션샤인’ 합안역, ‘기생충’의 가정주부 문광, OCN ‘타인은 지옥이다’ 엄복소 역 등으로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특히 ‘기생충’으로 제40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전성기? 내 속도대로 주변 살피며 마음 공부 해야겠어요

고두심·공효진 배려 덕분에 편하게 연기해

보고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드라마래요

작진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득 해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는 짧게 다니는데, 가마를 쓰고 메이크업을 안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공효진과 10살 차이인데, 사실은 상대보다 30살 더 많은 캐릭터를 5살 차이의 배우와도 연기해왔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공효진이 가진 자연스러운 연기와 배려 덕분에 연기가 편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은 ‘동백꽃 필 무렵’의 의미를 “다양한 모성의 조형”으로 꼽았다.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붕괴하는데,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새로운 조합이 생기잖아요. 중년이 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정숙도 일반적인 엄마 역할은 아니었죠. 엄마의 다각적인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라 의미가 있었어요. 다들 ‘보고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참, 제 엄마도 ‘동백이 끝나니 볼 드라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어 공효진은 물론 용식(김하

거머쥐었다. 차기작 러브콜과 광고 역시 쏟아지는 상황이고,
이정은은 “과거에 연극하고 싶어 뛰쳐 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지만, 집안이 가난하진 않다”며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감사하다. 내년에도 내 속도대로 주변을 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나이에 화장품 광고까지 찍을 줄은 몰랐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작품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의학 드라마나 액션극도 해보고 싶다. 다만 멜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여배우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나는 ‘공생’적인 사랑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연애 경험을 묻자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마흔다섯 이후로 끝났다”면서 “근데 또 모른다”고 웃었다. 이상형으로는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람을 꼽았다.
/연합뉴스



백두산 분화하면 어떤 재앙이 올까

KBS ‘다큐인사이트’ 5·12일 방송 슈퍼화산의 위력 재조명

KBS 1TV는 5일 선보일 2부작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기초과학이 그리는 미래’에서 백두산 분화를 둘러싼 진실을 조명한다.
지난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백두산 지진. 그런데 일반적인 지진은 아니라고 한다. 진앙은 천지 5~10km 아래로, 마그마의 이동으로 지각이 균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화산성 가스로 나무들이 말라 죽고, 천지 주변의 땅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인공위성으로 관측됐다. 백두산은 스스로 몸을 흔들며, 살아 있는 활화산임을 증명해왔다.

북한은 2011년 최초로 세계의 권위 있는 화산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백두산에 지진계를 설치해 백두산 아래 거대한 마그마 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과연 백두산은 분화할까.
백두산은 서기 946년, 유사 이래 최대 규모로 분화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폭발

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16만개가 한 번에 터진 에너지와 맞먹었는데, 200년 전 분화했던 인도네시아 수바와섬의 탐보라 화산이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냈었다.
백두산은 언제가 반드시 분화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어디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한국 과학자들이 백두산을 직접 연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연 백두산은 왜 만들어졌으며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을 직접 연구하지 못하는 대신 형성 원인이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와 독도를 통해 백두산 형성 원인을 연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자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제작한 실사와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백두산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5일과 12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성시경, 1년7개월만에 신곡...9일 공개

가수 성시경(40)이 1년 7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4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따르면 성시경은 오는 9일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새 디지털 싱글을 공개한다. 제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겨울 감성이 짙은 ‘성시경 표 발라드’로, 지난해 5월 발표한 ‘영원히’ 이후 첫 신곡이다.
성시경은 오는 20일과 2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연말 콘서트를 연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
| 9 | 30 KBS 뉴스 |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샐러드 |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
| 11 | 00 동행(재) 55 UHD 스테(재) | 00 99억의 여자(재) | | 30 고향이 보인다 |
| 12 | 00 KBS 뉴스 12 | 10 우아한 모녀(재) |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
| 1 |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 25 푸르기 식자교실 50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00 KBS 뉴스 10 취라기 킵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55 숲속 친구 스토리즈 | | | 00 뉴스브리핑 |
| 3 |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두 번은 없다(재) | |
| 4 | 00 사사건건 | 00 누가 누가 잘하나 | | 00 네오세모(재) 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또봇V-갤럭시워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 00 5 MBC 뉴스 25 수소, 새로운 여정 |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 25 오매! 전라도 | 00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재) |
| 7 |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 50 우아한 모녀 | 30 MBC 뉴스데스크 | 10 TV블로그 꿈자락 스페셜 |
| 8 | 30 꽃길만 걸어요 |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 55 하자있는 인간들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 9 | 00 KBS 뉴스9 | | | |
| 10 | 00 다큐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 00 99억의 여자 |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 00 맛남의 광장 |
| 11 | 35 UHD 스테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 10 해피투게더 1~2부 | 05 문화콘서트 난장 |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
| 12 |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 15 스포츠특선 2019 FLW 코스타 챔피언십 | 45 나이트라인 |

EBS1

| | | |
|--------------------|-------------------------|-------------------------------------|
| 07:00 출동! 슈퍼윙스 | 13:00 다큐 시선 |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
|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렛 |
| 08:00 똥똥똥 유치원 |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 19:30 생방송 판다다 |
|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 |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 20:00 4남매 쇼 |
| 08:45 방구대장 뽀뽀이 | 15:10 출동! 슈퍼윙스(재) | 20:30 자이언트 팽TV |
|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 15:25 트리푸름 |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
| 09:15 울리엔 문 | 15:55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재) | <한편쯤은, 하염없이 카자흐스탄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싶다면> |
| 09:30 다큐동화 달팽이 | 16:10 예술아 놀자 | 21:30 한국기행 |
| 10:00 지식의 기쁨 | 16:25 페파 피그(재) | <삭혀야 제맛, 발효기행 4부 인생, 톡 쏘거나 짭짤하거나> |
| 10:30 한국기행(재) |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 21:50 다큐 시선 |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7:00 EBS 뉴스 | 22:45 뽀하트 |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17:20 워든지 뮤직박스 |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
| 12:00 EBS 정오뉴스 |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 |
| 12:10 뽀하트 | 17:45 울리엔 문(재)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음 11월 9일 丙子) ☎ 010-9790-8237

| | |
|--|---|
| <p>子</p> <p>36년생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8년생 김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60년생 깊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72년생 시일을 끌어 왔던 바가 완성되어가는 동세에 와 있으나, 84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96년생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1, 83</p> | <p>午</p> <p>30년생 과정에 충실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42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을 야기할 뿐이니 처음부터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54년생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리라. 66년생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다. 78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9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5, 89</p> |
| <p>丑</p> <p>37년생 가까운 곳에 하자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보아라. 49년생 기저에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익이다. 61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선택하자. 73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절대로 아니 된다. 85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97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끝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0, 48</p> | <p>未</p> <p>31년생 중저렴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 바 꼭 잡도록 하라. 43년생 타당성 검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니라. 55년생 맞대응하러 하지 말고 애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67년생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79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91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80, 25</p> |
| <p>寅</p> <p>38년생 내버려두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0년생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유익하다. 62년생 기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74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6년생 전혀 이해 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98년생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기분 상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1, 19</p> | <p>申</p> <p>32년생 요령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 목적 달성을 더 용이하게 한다. 44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56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다. 68년생 감당 할 만 하리라. 80년생 뜻밖의 일이 터진다. 92년생 격까지 갖추지 않으면 소득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30</p> |
| <p>卯</p> <p>39년생 재수발원하면 효과를 본다. 51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자이다. 63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고는 은근히 진행 되어질 수도 있다. 75년생 다시 살펴보면 분명히 빈틈이 보일 것이다. 87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99년생 미리 의사를 개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6, 29</p> | <p>酉</p> <p>33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수다. 45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57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쾌념지 말라. 69년생 대인 관계와 처세에 공을 들여라. 81년생 현재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다. 93년생 격들의 현장에서 자생력이 드러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22</p> |
| <p>辰</p> <p>40년생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이다. 52년생 가랑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64년생 한 번 시작 되면 술술 풀려 나갈 것이니라. 76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보충하여 뒷받침 필요가 있겠다. 88년생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00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13</p> | <p>戌</p> <p>34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46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0년생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청 된다. 82년생 성사 되는 쪽으로 가다다 잡힌다. 94년생 지속적인 노력만이 목적을 달성케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53</p> |
| <p>巳</p> <p>41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뭄이 넘겨도 된다. 53년생 수용하는 것이 대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65년생 지금 힘이 들더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77년생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만 수습이 가능해진다. 89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01년생 정답은 쉽게 찾아질 것이니 부담감 기필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56, 26</p> | <p>亥</p> <p>35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47년생 긍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59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71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었다면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83년생 치밀한 설계 못지않게 알찬 실행도 절실히 요청된다. 95년생 소모적이라면 한시 비배 전화 하라. 행운의 숫자 : 97, 73</p> |